"일상회복 곧 진입… 軍에 감사"

정헌율 익산시장, 군 장병 수해복구 수행에 감사의 뜻 전해… 비닐하우스 정비 등 95% 완료

정헌율 익산시장은 막대한 수해피해 현장이 군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빠르게 복구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우로 여의도 면적 15배가 넘는 4426ha가 농지가 침수되는 등 대규모 피해현장이 군병력 투입으로 2주 만에 빠르게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제35사단 등 군 장병들은 2일까지 도로 위에 폐기물 제거 등을 끝으로 지난달 17일부터 펼친 16일간 긴급 수해복구 작전을 완료하고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1일 망성면 피해지역에서 오혁재 사단장을 만나 "한낮의 폭염 속에서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신속 복구에 임해줘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지역과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준 군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제35사단은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농지 대부분이 침수된 망성면, 용안면, 용동면 일대에 현장 안정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제거하며 연인원 1만2천여명의 군 장병들을 투입했다.

7공수특전여단, 11공수특전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전국에서 달려온 군장병들도 피해 복구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제35사단 중심으로 일 평균 885명의 군인과 장비 64대가 투입돼 유출기름과 토사, 농작물을 제거하고 비닐하우스 정비를 95%까지 완료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신속히 복원해 나갔다.

/익산=이재춘 기자

잼버리대회 사전·사후 군산 투어

벨기에 참여자 1133명 근대역사박물관·경암철길마을 등 방문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참여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잼버리 사전·사후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을 방문한다.

사전·사후 투어 프로그램은 1일 부안의 잼버리 영지에 입소하기 전·후 국내 주요 관광명소를 투어하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도권과 전북 주요 명소가 포함된 투어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별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를 확정했다.

군산의 사전·사후 투어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2,100여명으로 사전투어에 벨기에, 폴란드,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대만 등의 참여자 1,400여명과 사후투어에 호주, 폴란드, 아일랜드, 체코, 에콰도르, 인도의 참여자 700여명이 시간여행마을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경암 철길마을, 선유도 등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한다.

지난 7월 31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경암철길마을을 방문한 벨기에 참가자 1,133명은 근대역사박물관의 기획전시 '군산으로 통해展'과 우리나라 근대의 생활상을 재현한 '근대생활관' 등의 전시 관람에 흥미를 보였다.

또한 경암철길마을의 달고나, 근현대 추억의 장난감 판매점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1일과 잼버리 사후 8월 12일, 8월 13일에는 잼버리 영지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선유도에 방문해 선유도 해수욕장과 선유스카이썬라인 탑승 체험 등을 즐긴 뒤 돌아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잼버리 공식 영외활동으로 시간여행마을과 공설시장에서 열리는 '아는군산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에 1일 400명씩 8일간 총 3,200명이, 선유도 일원의 야영 프로그램에 1일 80명씩 5일간 400명이 참여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강임준 시장, 2차 예산심의 대응 기재부 방문

강임준 군산시장이 1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먼저, 기획재정부 2차 예산심의에 대응해 △연도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새만금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구축, △새만금산단 미래성장센터 건립,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확장공사 등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반영과 추진 동향을 살피고 예산반영을 당부했다.

특히, '연도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사업의 경우 몇 년 간의 두드림 끝에 얻어낸 연도 직항로 노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여객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퇴역 선령에 도달한 노후 여객선 대체의 시급성을 피력했으며, 낙도 항로 유지를 위한 국고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더불어,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사업'의 경우 신규 추가 구간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구간과의 연계의 효과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주요 인사를 만나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두 번째 예산심의 경향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세계 청소년들이 익산 곳곳에서 만나는 이색 관광 매력에 흠뻑 빠졌다.

잼버리 앞둔 세계 청소년, '익산투어' 큰 호응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세계 청소년들이 익산 곳곳에서 만나는 이색 관광 매력에 흠뻑 빠졌다.

세계 잼버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1380명의 외국 청소년들이 지난달 30~31일까지 익산 일원에서 펼쳐지는 사전관광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벨기에 1,106명, 몰타 76명, 인도 55명, 폴란드 40명, 파라과이 23명 등 5개국 학생들은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과 한류 콘텐츠 중심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지를 방문했다.

청소년들은 미륵사지(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유적(백제왕궁박물관), 교도소세트장, 고스락, 원광대학교 등 아름다운 익산의 관광지를 둘러보았다.

백제왕궁박물관에서는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전시유물을 관람 후, 백제왕궁가상체험관으로 이동하여 ICT로 재현된 백제왕궁을 체험했다.

참여 학생들은 "한옥과 조선 궁궐 등과는 다른 느낌의 1400여 년 전 백제왕궁의 모습을 첨단실감콘텐츠로 직접 시간여행을 하듯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교도소세트장은 OTT 등을 통해 접한 '한국 교도소 세트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죄수복 및 교도관복 체험으로 역할극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잼버리대회에 앞서 한국여행의 기쁨을 익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관할권 사수 집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정문에서 대한노인회 군산지회(회장 이태범)에서 주최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에 4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참석하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군산시 이·통장협의회, 군산시 새마을회, 군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400여 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전북도지사에 '김제의 새만금 소유권 주장 도발행위 규탄'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영일 의장은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지역의 큰 어르신인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전북도청 앞에 모인 것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민의 마음이 뜨겁게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며 "김제의 무분별한 관할권 주장으로 인해 야기된 분쟁이다. 총칼만 안 들었지, 군산과 김제는 영토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어 "김제는 2호 방조제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 새만금신항만마저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박가파식 땅 싸움에 재미가 들렸는지 이제는 천 년 전 역사와 일제강점기 치욕까지 들먹이며 고군산군도까지 본인 관할권이라고 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침수 농업기계 수리… 일상복귀 도와

익산시가 침수된 농업기계 수리를 통해 침수피해 농가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시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계 공무원, 전북농협 기술자협의회와 함께 용안면, 용동면, 망성면에서 농업기계 긴급 수리지원에 나섰다.

이들 봉사단은 1일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8일까지 농기계 수리 봉사를 진행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위해 소규모 부품 및 오일류 교체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긴급 확보하고 농업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하여 농업인의 피해복구 및 적기영농을 도울 예정이다.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된 경운기, 보행관리기, 동력살분무기, 예취기 등 총 400여대에 대해 용안면을 시작으로 망성면, 용동면 거점 지역 4개소를 운영한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생생직업체험교실 체험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생생직업 체험교실'을 개설하고 체험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직업체험은 오는 9월~11월까지 △유전자연구원(9.2.) 과정, △파티시에(9.9.) 과정, △아나운서(9.16.) 과정, △유튜브크리에이터(9.23.), △쇼핑호스트(10.14.), △신재생에너지전문가(10.21.), △난타(10.28.), △푸드스타일리스트(11.4.), △사물인터넷전문가(11.11.)과정이 수송동 맘껏광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10시(1~2학년), 11시 10분(3~6학년), 13시(1~2학년), 14시 10분(3~6학년)으로 매주 4회 운영되며,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분반해 12명을 선착순 모집해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 10시부터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체험비용은 무료다.

/군산=김판곤기자